

“불교학 위상 추락 심각하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 불교학연구회 발표회서

“현재 불교관련 학회는 사실상 ‘불교계’와 그 범주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외연이 넓어져 있다. 2012년 국가과학기술수표준분류체계에 의하면 불교학은 더 이상 독립된 학문분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술지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불교학 관련 학술지는 인문 학문분야보다 낮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학계의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교계와의 무분별한 외연확대가 불교학 연구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 현실 불교계와 구분이 뚜렷이 되지 않을 특수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불교학의 학문 위상 추락 결과가 불교학계 학술지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역사학 분야는 총 99종의 학술지에 영향력지수는 0.76, 철학분야는 48종의 학술지에 0.42의 영향력지수를 나타내는 반면 불교학은 0.3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학자 외 활동 많아 전문성 결여

영향력 지수서 현격히 낮아

학회지 소수만 영향 발휘

연구분야 따라 학회 재편해야

는 더욱 심각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불교학 관련 학술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면 13종으로 이중 동국대에서 발행하는 <불교학보>의 영향력이 두드러지지만 학회가 학계의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형식임을 생각할 때, 학회가 아닌 대학 부설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불교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상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불교학 관련 학회를 대표하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불교학>과 <불교학연구> 2종에 불과하다”

KCI에 등재(후보)된 불교학 관련 학술지 현황 (2011년 기준)

구분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보정영향력지수 (자기인용제외 IF)	영향력지수 (IF)
1	대각사상	대각사상연구원	0.21	0.33
2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0.11	1.16
3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0.48	0.58
4	보조사상	보조사상연구원	0.17	0.22
5	불교학보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0.42	0.51
6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회	0.35	0.44
7	선문화연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0.10	0.10
8	인도철학	인도철학회	0.34	0.45
9	정토학연구	한국정토학회	0.04	0.07
10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0.00	0.00
11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0.36	0.51
12	한국선학	한국선학회	0.29	0.40
13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	-
평균			0.24	0.40

며 “연구과정에서 보정영향력지수는 0.2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 요인을 불교학계 구성인종 전문학자 외에도 불교계 관련 기관, 언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음을 들었다.

박 교수는 “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은 불교학계에 현장감을 불어넣고 현실적인 안목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헌연구에 현대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학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학회를 학문분야별로 다양화 차별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들었다.

박 교수는 인도대승불교학회, 초기불교학회, 불교철학회, 불교사학회, 응용불교학회, 전법학회 같은 형식을 취해 주된 연구 분야에 따라 학회 구성원을 재편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희 경시대 박사과정의 ‘원효의 판비랑론에서 오식삼상(五識三相)의 개념’ △정유식 도쿄대 박사수료의 ‘여래장과 아뢰야식에 관한 능가경의 이해’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근대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인식 연구’ △동국대 강사 정은 스톱의 ‘당대(唐代) 선사들의 교육 방편’ 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前불교학연구회장인 박경준 동국대 교수에 공로패가 증정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슬람 침입과 불교타락 쇠퇴원인

조준호 교수, ‘인도불교 흥망’ 주제로 열린논단에서 강연

조준호 한국외대 HK교수(사진)는 불교 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5월 23일 개최한 ‘인도불교 흥망의 교훈’을 주제로 한 5월 열린논단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발전하고 쇠퇴해간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승려가 살해돼 재기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불교 승려들과 불교도는 이슬람 침략자에 의해 개종과 죽음이 가운데 하나를 강요받을 때

조 교수는 이날 “불교가 인도역사의 중심에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외부적 요인으로 바라문교를 이은 힌두교의 융성과 경쟁 종교인 불교에 대한 집요한 박해와 이슬람교의 무자비한 파괴를 들고 내부적 요인으로 불교 교단 내부의 정체(停滯)와 타락을 꼽았다.

조 교수는 “인도불교 쇠퇴와 멸망을 가져다준 결정적인 사건은 13세기 이슬람의 침입에 따른 파괴”라며 “이후 약 800년 이상 동안 인도에서 불교는 공백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당시 조직적인 교단 조직의 승원 불교는 대중으로부터 버림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상태를 죽이는 유흥전쟁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적 계율을 이유로 들어 개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힌두교나 자이나교 등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지만 유독 불교만 재기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내재적 요인이 더욱 크다”며 △성격상 조직충성도를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믿음보다 지혜 중심으로 지식계급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일방적인 생활의례 정착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 교수는 “대중에 유리된 출가 중심의 승원불교는 대중으로부터 버림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근현대 불교학자 조명 학술대회

한국불교사학, 6월 8일 동국대 다량관서

근현대시기 우리나라 인문학과 불교학의 기반을 다진 학자들을 집중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제4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의 탐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뇌허 김동화의 불교철학 연구’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효성 조명기의 불교사학 연구’ △송희복 전주교대 교수의 ‘미당 서정주의 불교적 상상력 연구’ △조현철 서울대 교수의 ‘지후 조동종의 불교문화사 연구’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 도상해석학’ 학술대회

한국미술사학, 6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조선시대 후반 기록문화재를 통해 불교미술을 분석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태)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기록문화재를 통한 조선후반기 제2·3기(18·19세기) 미술의 도상해석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시립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건축의 형식과 의미 연구’ △주수만 고려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교건축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학 연구’ △최용천 동국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의 불교 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징 연구’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교미술의 조성사상’ 등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명태 동국대 명예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교미술의 성격’ 주제발표와 함께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상조각의 조성기 분석을 통한 조성배경 연구’ △김현정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조선후반기 제2기 불화의 도상해석학 연구’ △김정균 동국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3기 불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이강근 서울

이날 토론자로는 인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김정희 원광대 교수, 손신영 전 전북대 HK교수, 이분의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 고정은 부산외대 HK연구교수, 오진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등이 나선다. (02)3673-3426

노덕현 기자

수증사 오층석탑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5월 23일 해남 대흥사 천불전도 지정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5월 23일 시도유형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남양주 수증사 오층석탑과 해남 대흥사 천불전을 각각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남양주 수증사 오층석탑(南陽州 水鏡寺 五層石塔)은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통을 이어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이다. 출토된 사리장엄(舍利莊嚴)과 명문(銘文)을 볼 때 건립연대는 1493년으로 1628년 중수(重修)됐음을 알 수 있다.

수증사 오층석탑은 건립연대가 확실하고, 각부의 부재가 완전하게 유지된 조선시대 팔각오층석탑으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海南 大興寺 千佛殿)’은 1813년에 중건(重建)된 건물로 대



흥사 남원(南原, 금당천 남쪽)의 중심건물로 서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등을 통해 건물의 중건과 천불 조성·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에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단체공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선무도 공연◆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